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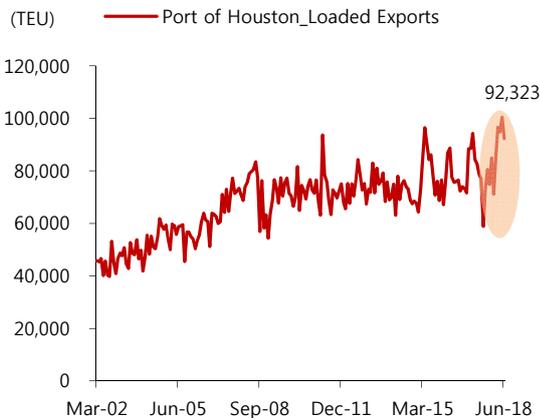
- ✓ 현대미포조선은 7월 18일 컨테이너선 4 척을 수주함
- ✓ 휴스턴 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 이는 북미 PE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향후 지속 증가할 전망

## 현대미포조선의 소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지속되는 이유: 미국 PE 수출 증가

7월 18일 현대미포조선은 컨테이너선 4 척 수주 공시를 했다. \$2,742 만/척에 수주해 Clarksons Research의 1,800TEU 급 선박 신조선가인 \$2,575 만/척 대비 약 6.4% 높은 선가에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연초 이후 현대미포조선은 Feeder 급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이는 북미 지역의 PE 수출 증가 모멘텀에 기인한다.

북미 최대 석유화학 제품 수출 항구인 휴스턴 항의 6월 컨테이너 수출량이 92,323TEU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cal Council)에 따르면 6월 북미 지역 PE 수출은 5월 대비 10.55% 증가한 11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1TEU 컨테이너 하나를 PE로 가득 채우면 대략 6만 파운드 가량이므로 **6월에 북미지역에서 약 18,783TEU의 컨테이너가 PE로만 가득 채워져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휴스턴 항의 최근 컨테이너 수출량 증가는,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량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PE 물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PE 수출은 이제서야 시작을 한 단계이며 본격적으로 수출 ramp-up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미 지역 PE 수출 증가에 따른 현대미포조선의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휴스턴 항 컨테이너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음



6월 북미 PE 수출 전월 대비 +10.55%, 지속 증대 중

Total polyethylene stocks in the US and Canada decreased in June on **stronger export sales** as production saw a slight dip, according to preliminary data released Thursday by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Combined sales were at 3.948 billion lb (1,791,159 mt), with 2.82 billion lb sold in the domestic market, down 2.8% from May, **and 1.127 billion lb designated to export, up 10.55% from May.** Total sales were up 0.65% from May. (하락)

자료 : Port of Houston, SK 증권

자료 : Platts,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